

[2025 건설의 날] “안전이 최고의 가치...정부 안전 동참”

기사입력 2025-08-28 06:00:30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 및 안전혁신을 위한 결의문' 선포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사진 왼쪽)가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과 건설안전 문화 혁신을 위한 결의문을 선포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이날 기념식에는 건설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조성하고, 건설산업을 더욱 일하고 결의의 시간이 마련됐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른 가운데 건설산업에 대한 사회적 외면이 심화하고 이미지 또한 추락하

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물이다.

이날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는 전국 200만 건설인들을 대표해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 및 안전혁신을 우

건설업계는 결의문에서 "우리 건설산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세계 속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며 "이러한 성과와 국가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생명을 위속되고 있어 건설안전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200만 건설인은 건설현장을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로 만들고 나아가 건설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안전에 관한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고 정부의 안전정책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관계 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으로, 여기에 건설업계도 적극 협조해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

또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항상 실천에 옮기고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선다"고 강조했다. 또 이 혼합된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무재해 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포부다.

건설업계는 "안전교육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시설 설치 및 활용을 생활화 설안전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제거하고 매 순간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고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가 확보되고 충분한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보장되는 건설시장 선진화를 위해 건설현장 안전은 단순히 건설업계 자정노력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확보

정석한 기자 jobize@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부

정석한 기자

jobize@dnews.co.kr

-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콘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